

코오롱글로벌 (003070)

N.R.

중장기적 성장을 바라보자

목표주가: 0원
현재주가: 3,820원

탐방일: 2013. 2. 15

건설
Analyst 박상연
02.3779-8944
sympark@etrade.co.kr

기본정보

	02/18	1 주전	1 개월전	12 연말			[주주]
[총가]	3,820	3,855	4,120	3,505	[자본금]	2,112십억원	(주)코오롱 외 21 인 59.5
[시가총액(억원)]	3,175	3,204	3,422	2,918	[총자산]	31,922십억원	코오롱글로벌 자사주 7.7
[외국인지분율(%)]	2.2	2.2	2.2	2.2	[총부채]	17,916십억원	

Financial Data

(십억원)	2009	2010	2011	11.1Q	11.2Q	11.3Q	11.4Q	12.1 Q	12.2 Q	12.3 Q
매출액	1,352	1,120	1,450	242	347	350	511	836	930	919
매출원가	1,181	1,007	1,297	214	311	316	456	762	856	835
원가율(%)	87.4	89.9	89.4	88.4	89.7	90.0	89.2	91.1	92.1	90.9
판매비/기타영업손익	118	136	85	8	5	25	47	53	57	63
판매비율(%)	8.8	10.6	12.0	10.2	16.5	8.8	12.1	9.0	6.6	7.0
영업이익	52	-22	69	20	31	10	8	22	17	20
영업이익률(%)	3.9	-2.0	4.7	8.1	8.9	2.9	1.6	2.6	1.9	2.2
순이익	6	-68	4	2	7	-3	-1	8	2	1
순이익(지배주주)	6	-68	4	2	7	-3	-1	8	2	1
순이익률(%)	0.4	-6.1	0.3	0.8	2.0	-0.9	-0.3	0.9	0.2	0.1
EPS(원)	241	-2,725	149	현금성자산		273	323	325	348	273
PER(배)	27.7	N/A	28.9	총차입금		1,036	1,056	1,035	1,085	1,036
PBR(배)	0.5	0.4	0.7	순차입금		762	733	711	737	762

자료: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주: K-IFRS 별도기준

탐방내용 요약

코오롱글로벌 회사 개요

- * 2011년 12월 코오롱건설, 코오롱아이넷, 코오롱B&S의 합병으로 코오롱글로벌 설립. 건설, 무역, 유통, IT 사업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음
- 사업부문별 매출비중은 '12년 3분기 누적 기준 건설 40%, 무역 33%, 유통 20%, IT 6%으로 건설 비중이 가장 높음
- 사업부문별 영업손익비중은 '12년 3분기 누적 기준 건설 31%, 무역 2%, 유통 53%, IT 14%으로 유통 비중이 가장 높고 사업 부문 중 마진율이 좋음

'12년 4Q 실적 전망

- * 4Q12 실적 매출액 1.0조원 영업이익 210억원~250억 예상
2012년 누계 매출액 3.7조원, 영업이익 800억원 상회 예상
- 건설부문에서 09년부터 늘어난 공공부문 물량 원가율 상승으로 수익성 하락세 지속
- 주택관련 비용 반영 가능성 존재

'12년 PF 및 미분양 현황

- * PF 1,300억원 수준, 미분양 59세대 수준 예상
- 중소형 건설사의 우려사항인 PF 및 미분양 risk는 2012년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

'13년 연간 실적 가이드스 및 사업계획 전망

- * 매출액 3.9조원 수준 예상, 수익성 개선 전망
전년대비 매출액 증가 및 GPM/OPM 개선 전망
- 건설부문: 2012년 저가수주 지양 기조로 수익성 개선되는 물량
2013년 매출 반영 예상 → 수익성 개선세 전망.
외형 성장은 회사의 수익성 위주 전략으로 둔화될 전망
- 유통부문: 자동차 판매 전년 대비 10% 성장 목표. A/S 비중 상승으로 원가율 개선 효과 예상
- 무역부문: 주요품목인 비료 및 무연탄 매출 올해 정상화 예상
철강 수출 사업 확대 전망. 전년대비 매출 성장 전망
- IT부문: 신사업인 CCTV부문 작년 시작에 이어, 빅데이터 관련 신사업 추가 예정
- 자동차 사업부문 벨류체인 확장 계획: 현재 주로 영위하고 있는 판매, A/S 부문에서 렌트/리스 사업 및 중고차 유통 사업 개시로 벨류체인 확장 중. 향후 부품 및 캐피탈 부문으로도 확장할 계획

차입금 부담은 상존하나, 중장기적 성장은 유효하다고 판단